

# 민주통신

http://ilovekt.org/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  
 희망의 빛이 되는 민주통신이 되겠습니다.  
**KT 전국민주동지회**

제23호 2012년 임단협 특별호 발행처|KT전국민주동지회 주소|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80-10 TEL|02-701-0070 FAX|02-704-4441

## 임금인상률 6.2%에서 절대 물러나선 안된다. 당장 투쟁을 조직하라!

### ○ 멘붕

10월에 월급명세서를 받아본 조합원들은 누구나 이른바 ‘멘붕’을 제대로 느꼈을 것이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평달(상여금 없는 달)인데, 지난달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까지 원천징수되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200만원조차 안되는 월급을 받아줬었다. 케이트 ‘열린토론펙’에서는 허탈한 조합원들의 뒷두리들이 넘쳐나고 있다. 도저히 월급으로는 생활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 가야 되는지 조언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다가 하면, 한달에 저축을 얼마나 하느냐는 글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마이너스저축’을 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답변을 달며 서글픈 공감대를 자아내기도 했다. 젊은 직원들에게 주는 선배 직원들의 조언이라는 것이 ‘결혼하면 무조건 맞벌이해라. 아이 둘 키우기는 힘드니 한 자녀로 만족해라’ 등이고 이에 대해 많은 직원들이 격한 공감을 표시하는 게 지금의 케이트 ‘열린토론펙’에서 보여지는 직원들의 보편적 정서이다.

### ○ ‘나는 못난놈이다’

그중에서 특히 직원들의 많은 공감을 끌어낸 글이 있다. ‘나는 쓰레기다’(추후 ‘나는 못난놈이다’로 수정됨)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던 한 조합원의 글은 현재 케이트 직원들이 처한 처지를 생생하게 그려내어 많은 직원들의 가슴을 울렸다.

“입사 13년차 월급 176만원 받으면서 9년전 결혼때 얻은 대출금은 아직도 못 갚고 있고... 주행거리 17만이 훌쩍 넘은 내 차는 기름값이 아까워서 못 굴리고...

미술학원 다니고 싶다는 딸내미에게 아이패드 스케치북 앱을 다운받아 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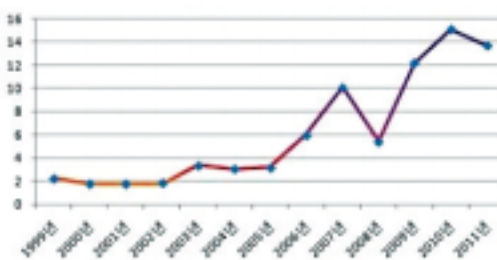
마트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어야 하는 아내는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잠을 제대로 못자고... 늙으신 부모님은 그 흔해진 해외여행 한 번 못가시면서도 해마다 가는 kt수련관에 행복해하신다.... 난. 못난놈이다.”

격한 표현을 빌미로 게시판 관리자가 삭제하였지만 이내 순화된 표현의 글이 다시 올려졌고 많은 직원들이 공감의 댓글과 찬성투표로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한 글에 호응하였다. 이렇듯 조합원들은 어느새 자신을 ‘쓰레기’라고 까지 탓하며 쓰러린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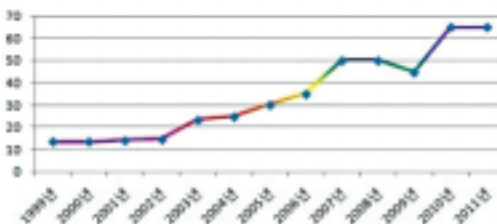
### ○ 임금협상 더 이상 물러나선 안된다!

이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노동조합에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조합원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회사 입맛대로 움직여온 과거는 접고 새롭게 거듭나길 마지막으로 호소해본다. 그 첫걸음은 이번 임단협에서 노동조합의

상임이사(3명) 1인당 평균 지급액(억)



임원(10명)의 총보수(억) 주총 승인금액



임원들의 보수는 몇십억단위로 오르는 동안 직원들은 생활고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에서도 그동안 소식지를 통해 6대요구안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지 않았던가?.

물론 많은 조합원들이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보여왔던 행태들을 알기에, 그러한 의지표명이 '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의구심을 가져왔다. 아마도 몇 차례 밀고당기기 이후에 3% 정도 수준의, 불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삭감에 불과한 합의안을 들이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 ○ 당장 투쟁을 조직하라

이런 조합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진정 '강한노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요구를 관철시킬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당장 투쟁을 조직하라! 물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이겠지만, 당장 파업이 아니더라도 회사를 압박할 무기는 다양하다. 노동조합에

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투쟁들이 무궁무진하다.

현장 지부의 조합간부들에게 당장 투쟁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강력한 준법투쟁만 벌여도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하자! 휴대폰 강매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GB프로그램에 대한 조합의 동의를 철회하고 현장에 협조중단을 지시하라! 서유열 사장의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제공과 국정감사 불출석 등 낙하산인사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kt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동조합이 내부비판자로 나설 것을 천명하라! 회사를 압박하는 투쟁에 나서야 조합의 요구를 물러섬 없이 관철할 수 있고 조합원들 또한 조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진정 조합원들의 열망을 받아안고 투쟁에 나선다면 KT민주동지회 또한 조합원들과 함께 그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투쟁에 나서라!



kate 열린토론폰방에 올려진 직원들의 목소리

### ● 나는 못난놈이다.

입사13년차 월급 176만원 받으면서 9년전 결혼때 얻은 대출금은 아직도 못 갚고 있고...  
주행거리 17만이 훌쩍 넘은 내 차는 기름값이 아까워서 못 굴리고...  
미술학원 다니고 싶다는 딸내미에게 아이패드 스캐치북 앱을 다운받아 주고...  
마트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어야 하는 아내는 저녁이면 다리가 통통부어 잠을 제대로 못자고...  
늙으신 부모님은 그 흔해진 해외여행 한번 못가시면서도 해마다 가는 kt 수련관에 행복해하신다 .

티비를 보다가 “어 티비에 올레나온다~! 우리 아빠 회사다 !!!!” 하고 까르르 웃는 딸 앞에서, 수련관에 가서서 “우리 아들이 케이트 다니니까 회사에서 이런곳도 쓰게 해주느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통통 부은 다리를 주무르다 말고 “그럼요~ 요즘처럼 힘든 때 애아빠 회사처럼 좋은데가 어딴어요.”라고 말하는 아내 앞에서, “나는 속으로 거친육을 뺏는다”

SK텔레콤에 다니는 내 대학동기는 연봉이 1억 넘는 기념으로 와이프가 새차를 사라 했단다. 같은 통신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졸업때부터 지금까지 은근한 라이벌 관계였던 친구였는데 이젠 '라이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해졌다.

하지만 누굴 탓하겠나 내가 못나 이런건데...

매해 줄어드는 월급을 알면서도 협상결과에 대해 좋다고 투표하고 박수 치지 않았던가.

회사에 하고 싶은말 해보라고 할 때 제대로 말한적이 있었던가. 나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이직을 시도한적이 있었던가.

아빠의 연봉동결 대신받은 아이패드 앞에서 미술학원을 까맣게 잊어주는 자식과 명절이나 생신때 드리는 용돈 20만원과 1년에 한 번 가는 도고수련관으로 만족하시는 부모님과 마트라도 나갈테니 걱정마라 고 말해주는 아내를 고마워 할 줄만 알았지 내가 변하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난 못난놈이다.

세상에 이렇게 못난놈도 없을거다.

처자식 까지 딸린놈이 이렇게 호구같을수도 없을거다.

거울이 어디 있더라..

큰 거울 앞에서서 내 얼굴을 보며 크게 카악거려 굶은 침 한번 뱉어주고 싶다.

“카악...뿔~!” “에라이 000 00야!!”

...

KT는 GWP코리아가 선정한 '2012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중에서 최고상인 '글로벌 GPTW(Great Place to Work) 대상' 을 받았다.

# 직원 속이고 협상하는 노사 양측 모두 천벌 받아야 한다!!

현재 2012년 임금협상이 11월이 되었건만 본교섭 단 두 차례가 진행되었을 뿐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양새가 매년 너무도 익숙해 보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 조합원 요구의 절반도 안되는 요구안을 교섭석상에 내놓으면 회사는 경영여건이 안좋다며 삭감안을 제시하다가 교섭이 중단되고, 노동조합이 싸울 의지도 없으면서 마치 대단한 투쟁이라도 할 듯 레토릭을 쏟아내면 회사도 대단한 양보라도 한듯 동결 또는 3% 미만의 인상안에 노사대표가 악수하며 사진찍는 모습이 정해진 수순이었다. 올해에도 이렇게 짜증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kt이사회가 2011년11월15일 의결한 [2012년 kt 및 그룹경영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사가 얼마나 직원들을 속이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2012년 경영계획에 인건비는 고과승급분 3.2%와 임금조정계수(@ 계수) 1.01를 적용하여 2011년 대비 총 3.7%(894억원)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회사측은 만약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2012년 인건비를 2011년 대비 최소한 894억원 인상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회사측은 노동조합과 항상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개최된 2012년 임금교섭석상에서 회사측이 임금삭감안(임금조정계수 0.995)를 제시하였다가 2차 교섭에서는 고과승급분 3.2%만을 고집한 것을 보면 후안무치하고 교활함까지 엿보이고 있다.

노동조합 역시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무급휴일근로와 연차휴가반납 그리고 긴급출동비와 출장비 등 미지급된 임금착취분에 대해 일언반구 못하고 있다. 당연히 임금채권 소멸기간인 3년치 임금착취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3년치 미지급분을 특별성과급으로 300%를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조합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의 정당한 대가조차 받아내지 못하는 노조집행부에게 낮은 임금인상요구안조차 관철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천벌을 받기 전에 집행부와 회사는 조합원들의 절절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니면 동반퇴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의안번호	제 60호	의결사항
의결날짜	2011.12.15.	
날짜	(제 22차)	

2012년 kt 및 그룹 경영계획(안)

제안자	(사) KT 대표이사 회장
보고자	Corporate Center 김일영 부사장
제출일	2011.12.15.

Part 6. kt-채용계획

LTE 본계회 및 사업 확대에 따른 Fair Price 제도 정착을 통한 재계정

비율	11년	12년	증감	증감률
총 인건비	197,914	206,308	8,394	4.2%
인건비 비중	179,883	186,148	-9,735	-5.4%
고과승급(당첨/부합/기타)	111,578	132,125	20,547	18.4%
인건비	30,958	31,181	223	0.7%
인건비 비중	17,412	16,667	-745	-4.3%
인건비 비중	16,778	16,000	-778	-4.6%
인건비 비중	21,687	24,746	3,059	14.1%
인건비 비중	28,289	30,281	1,992	7.0%
인건비 비중	40,189	49,385	9,196	22.9%
인건비 비중	19,833	24,513	4,680	23.6%
인건비 비중	10,918	12,719	1,801	16.5%
인건비 비중	14,378	16,812	2,434	16.9%
인건비 비중	14,378	16,812	2,434	16.9%

**4 인건비 : 자연 증가분 반영**

- 고과 승급(3.2%), @임금조정계수) 1.01적용 등 증가요인 반영으로 '11년 대비 894억원 증가

- 연매출 : '11년 하반기 비정상적인 수문 현상 정상화 추진 지속
  - KT가 처음 본거지에 대한 시장 점유율 확대 계획 30%
  - Fair Price 등, 주요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대
  -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
- 사업신뢰 : 고객만족도 향상, 품질 관리 강화, 고객 서비스 강화
  - 고객만족도 향상, 품질 관리 강화, 고객 서비스 강화
  - 고객만족도 향상, 품질 관리 강화, 고객 서비스 강화
- 사업신뢰 : 고객만족도 향상, 품질 관리 강화, 고객 서비스 강화
  - 고객만족도 향상, 품질 관리 강화, 고객 서비스 강화
  - 고객만족도 향상, 품질 관리 강화, 고객 서비스 강화
- 인건비 : 자연 증가분 반영
  - 고과 승급(3.2%), @임금조정계수) 1.01적용 등 증가요인 반영으로 '11년 대비 894억원 증가
- 인건비 : 자연 증가분 반영
  - 고과 승급(3.2%), @임금조정계수) 1.01적용 등 증가요인 반영으로 '11년 대비 894억원 증가

# 2012년 또 부동산 매각 5천억! 자산매각 5천억!

이석채회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이후 국민들의 중 자돈으로 마련된 전국방방곡곡에 위치하고 있는 알짜 배기 전화국 건물과 부동산이 갑자기 매각되고 있어 낙하산을 제외한 대다수 직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수십개의 전화국과 부동산이 매각된데 이어 2012년에도 부동산 매각과 자산매각이 예정되어 있음이 kt이사회가 2011년11월 15일 의결한 『2012년 kt 및 그룹경영계획(안)』의 내용을 통해 밝혀졌다.

올해에도 부동산 매각 5천억원, 자산매각 5천억원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매각 후 다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여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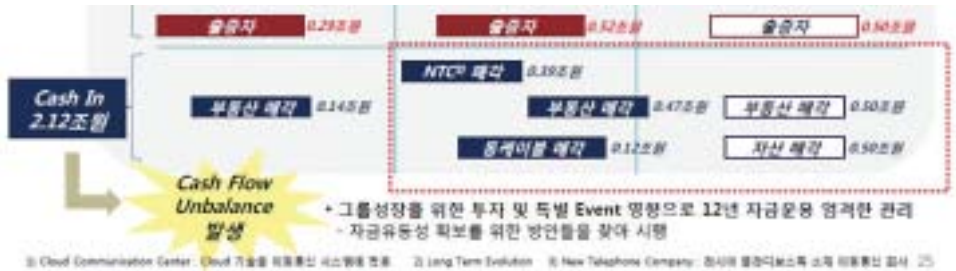
또한 부동산과 자산 매각이 먹튀경영진들의 재임시 경영실적으로 부풀려지거나 비리로 연결될 개연성에 직원들은 분노하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이다.

실제로 2011년도에 달성한 당기순이익 1조2천800억원 중에는 부동산매각 4700억원, 자산(러시아 NTC)매각 3,900억원 등 합계 8,60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순이익은 4,200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엄밀히 말하자면 이석채회장의 경영실적인 것이다. 그런데 주주들에 대해 배당은 4,800억원 이상 하였다. 부동산과 자산매각을 제외하면 배당성향이 100%를 초과하였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러한 고배당의 최대 수혜자는 해외투기자본이며 절반 이상인 2,500억원 이상이 국부유출되었다.

직원들 쥐어짜며 이렇게 경영해도 되는 것인가?



## 위성사업부문 분할 주총 11.23 개최

회사는 10월23일 공시를 통하여 11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목적사항은 위성사업부문을 본체로부터 분리분할한다는 것이며 가칭 주식회사케이티넷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총개최를 공시한 그 날부터 갑자기 직원들에 대한 복무통제가 시작되었다. 바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는 11월23일에 민주동지회 회원들에게는 절대 휴가를 내주지 말라는 것이었다. 회사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자신이 없는 것인가?

현시대 통신의 흐름은 분할이 아니라 융합이다! 이것은 이석채회장이 취임한 이래 누차 강조하며 되풀이해온 말이다. 해서 KTF를 합병할 때의 논리적 근거도 유선과 무선의 융합이었다. 그런데 위성사업부문은 왜 융합이 아니

라 분리.분할인가?

본체에서 유선과 무선을 위성과 융합하여 서비스해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왜 자신이 수없이 주장해온 논리를 뒤집고 있는 것인가?

해서 많은 직원들은 위성사업부문 분리분할에 대해 걱정부터 한다. 우선 분리분할에 어쩔수 없이 따라가는 해당 부문 직원 뿐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의 전환배치가 모두 고용불안과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 한가지는 혹시 재벌과 해외투기자본에게 매각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위성사업부문이 반드시 다시 본체와 합병되는 날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kt는 자유로운가?

최근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무법인이 유성기업 등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하는데 깊숙히 개입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폭로된 창조컨설팅의 문건은 ‘공격적 직장폐쇄→용역강패 투입→어용노조 설립→민주노조 파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경로를 보여 주고 있다.

창조컨설팅의 자료를 통해 드러난 유성기업의 어용노조 육성전략은 크게 네 부분으로 돼 있다. 첫째 직장폐쇄를 통해 금속노조 조합원 이탈을 유도하고, 둘째 복수노조가 허용된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셋째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는 징계를 추진하고 어용노조에는 교섭과 일상활동을 지원해 노조 간 경쟁에서 어용노조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한 뒤, 넷째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어용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있도록 사무관리직

을 가입시켜 조합원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창조컨설팅이 자문하고 유성기업이 실행한 이 계획은 그대로 실행됐다. 현재 유성기업의 교섭대표권은 어용노조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복수노조가 합법적으로 도입된 2011년 7월 이후 실행되었던 구체적인 사례이다. 그러면 복수노조가 합법화되기 이전 시기에는 어떻게 민주노조를 어용노조로 바꾸었을까?

아마도 이에 대한 정답은 바로 KT 조합원들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 노동부가 회사측과 합작하여 입체적으로 선거에 지배개입하고 민주노조를 지지하는 조합원과 활동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며 어용노조를 유지하고 민주노조 세력을 고립시켜온 것이 바로 KT 노조탄압의 역사임을 조합원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다.

물론 창조컨설팅이 민영화 이전부터 KT에도 자문해 왔음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아마도 KT에서 민주노조를 파괴하였던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다른 사업장의 민주노조 파괴로 전파되고 이어졌을 것이다.



창조컨설팅은 현재 등록이 취소되었고 소속 노무사들도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데 그러면 끝인가? 절대 아닙니다! KT민주노조 파괴과정에 대한 진실은 아마도 이제부터 밝혀내야 한다.

당장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시에 청와대 국정원 검찰 노동부가 어떻게 KT민주노조 활동가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며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말살해 왔는지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창조컨설팅이 수행한 주요 노사관계 컨설팅 내용	시간/기간
발레오인텔시스템스코리아 (자동차부품업체) • 집행부 교체(김경 - 온건) • 조직형태 변경(전체노조 → 기업별노조)	2010년 3~7월(4개월)
상남브레이크(자동차부품업체) • 금속노조 탈퇴(2010년 11월) • 복수노조 대응 컨설팅 진행중	2010년 8월~현재(진행중)
대일자동차 • 집행부 교체(김경 - 온건) • 조직형태 변경(전체노조 → 기업별노조) • 민주노총 탈퇴(2010년 5월)	2009년 10~12월(3개월)
단오(자동차부품업체) • 경영위기 극복 노사합의 • 용역기 노사관계 복도업 수립 • 2년 연속 무분규 6개월	2008년 1~6월
동우화인(전통도자기업체) • 조합원 수 감소(420명 - 0명)	2009년 6~8월
성안병원 • 노조 해산(서울성안병원) • 3년간 무분규 선전(공명상해병원) • 조합원 수 감소(360명 → 15명)	2009년 1~5월 2010년 1~5월
동아대학교의료원 • 조합원 수 감소(500명 - 200명)	2007년 1~5월 2008년 1~5월
연세대학교의료원 • 노사합의 선전 • 조합원 수 감소(4500명 - 3000명)	2009년 8~10월 2009년 8~10월
영남대학교의료원 • 조합원 수 감소(1200명 - 60명)	2007년 6~8월
세이브사이드 컨퍼런스센터 • 노조 해산	2009년 9월
엠펙(화학업체) • 조합원 수 감소(1900명 - 20명) • 합기 무대업 유지	2009년 10~12월(3개월)
한국외국어대학교 • 협조적 노조부 구성	2009년 3~12월(10개월)

자료: 창조컨설팅 노사관계 컨설팅 실적(2007~2010년 4월) \* 일부 내용은 언론 보도나 내부 문서 등에 공개되어 있지 않음

창조컨설팅 개입 기타 사항	시간/기간
컨설팅 수월 케한(KECO) 운영을 이후의 노조파괴 컨설팅, 케한(KECO), 동우화, 순천대영학원, 한지아개발, 부민기술, 한국방송광고공사, 예원부동산, 엘레이티비(가정), 한여름방송사, 성남 안화발전, 김포소프트, 동양산업, 모우투어, 아주대의원, 한일사면, 하나은행 비정규직, 아주그룹 계열사 서울메트로, 세이브 컨퍼런스, 카동차주, 화승치교사, 보령도립민노조법정 근로자성 권민 컨설팅	
단체교섭 수임 및 타겟 허랜드, 대한항공, 스포츠조선, 카동차방송(CBS), 스위스그랜드호텔, 케한지, 계약직, 한국레일, 파울컴(제1TV) 등 50여곳	
자문 등 회원사 현대제철, 디스, 한국방송공사(KBS), 케한지, 연대카드, 서울메트로, 재능교육 등 100곳	

## ● 투쟁 보고 – 촛불문화제

지난 10.19일(금) 저녁 8시부터 kt광화문사옥앞에서는 ‘낙하산 인사 척결과 해고자복직 그리고 통신 재공공화 촉구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kt민주동지회는 연말대선을 앞두고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낙하산 인사의 전횡, 노동인권 탄압, 통신공공성 파괴 등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kt광화문사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끈질긴 투쟁으로 kt문제를 공론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 소식- 해고자 부당해고 소송 승소

전북에서 민주동지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강순문동지가 10월 16일자로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난 후 11월 2일자로 원직복직이 되어 다시 출근을 시작하였다.

이석채회장 취임 이후 강순문동지를 비롯하여 조태욱(10대 중앙위원장 후보), 원병희(10대 전북지방위원장 후보) 등 3명의 민주동지회 회원이 해고되었는데 원병희동지가 지난 5월에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7월에 복직한 이후 이번에 강순문동지에 대한 해고도 부당해고로 판정난 것이다. 이석채회장 체제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동지회에 대한 탄압들이 보수적인 법원의 판단으로도 부

당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민주동지회원이자 KT새노조 위원장인 이해관 동지를 경기 가평으로 체임한 건도 국민권익위에 의해 부당하다고 판정이 났다. 정기 국회에서는 KT노동인권 탄압 문제 때문에 이석채회장이 증인채택 일보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비록 치열한 회사의 로비 덕택에 간신히 증인채택은 면했으나 이석채 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 비판여론이 날로 증폭되는 상황이다.

MB정권의 종말과 함께 MB낙하산 이석채 회장에 대한 심판도 멀지 않았다.